

캄보디아에 뜬 무지개

이번 선교여행은 캄보디아 5번 국도를 따라 꺾뽕초낭도 2개 지역 목회자 연합집회 그리고 뽕싼도지역 목회자 연합집회, 받뎀봉도지역 목회자 연합집회, 마지막으로 번띠민찌이도지역 목회자 연합집회등 4개도 5지역에서 목회자연합집회를 인도하였고, 또 그 지역 목회자들의 사역지들을 돌며 기도하고 위로하고, 사역협력을 의논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또한 목회자들 가정을 위로하며, 청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후원으로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도 안타까운 것은 건축은 하였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한국선교사에게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는 현지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서로에게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이제 그들에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말씀과 영성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이 정말 소망을 갖고 목회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더운 계절입니다. 가는 곳마다 4시간씩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 되는 대로 교회들을 찾아 방문하였습니다. 몸은 너무나 지쳤지만 심령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5인승 차량이라 다른 현지목회들과 함께 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차도 지쳤는지 가기 전에 수리와 점검을 하고 출발하였지만, 마지막지역 숙소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타이어가 낡아 바람이 빠져버렸습니다. 타이어를 새로 사서 교체하고 프놈펜으로 돌아오는데 저녁하늘에 하나님께서 멋진 쌍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돌아와 저녁마다 모이는 목회자 사역자 성경대학시간을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그들을 ZOOM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쎄 썸남목사가 교통사고로 차가 몇 번 굴러 머리를 꺾매고 여러곳이 상하였습니다. 특별히 기도부탁드리는 것은. 뽕히읍 사역자 아들(40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힘도 없고 몸이 말라 닝겔주사에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다. 몸찰이라는 사역자 딸이 코가 혈어서 계속 피가 나오고 있고, 부인은 자궁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까에우곰산 목사는 감기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김동규, 이승향 선교사 올림

이탈리아에서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광신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황망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 하나님의 뜻인 세계선교에 평생을 소진하셨던 김목사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선교사로서 마음가짐을 다시 추스려 봅니다. 육체의 연약함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선교에 진력하셨던 김광신 목사님의 모습이 선교사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김목사님께 받은 사랑과 선교에 대한 도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신학교' 설립에 대한 꿈을 말씀하시면서 유럽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셨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아쉬움을 가지고 저희는 멀리서나마 기도하면서 마음을 달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끝까지 충성하셨던 김광신 목사님을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평안을 전합니다.

- 이탈리아 밀라노 유럽을 위한 교회에서 박상연, 권병희 선교사 올림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 CT 촬영 결과 아무 장기에도 전이가 되지 않았고 암세포는 2mm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처럼 수술, 항암치료 받지 않고 주님께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9월에 다시 CT촬영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2. 터키 양창모 선교사- 파킨즈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터키 최지섭 이해영 선교사- 이해영 선교사님은 암에서 많이 치유되었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아르헨티나 강지애 선교사- 암이 림프로 전이 되었고 항암치료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이 줄어들고 치유함 받도록.
5. 강명철 선교사 - 우울증이 좋아져서 약을 끊게 하시옵소서
6. 이지향선교사 - 척추 협착증 족저근막염 기도 덕분에 통증 없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네팔 이승배 선교사 - 이승배 선교사님께서 전립선 암 재발로 인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파푸아뉴기니 남영미 선교사 - 남영미 선교님께서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 완전 절제 후 호르몬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고산지대와 열대 지역 온도로 인하여 체온 조절이 힘들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약으로 제어가 힘든 상황입니다. 선교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러시아 최성목 선교사 - 중풍으로 인해 오른쪽 뒷목이 당기고 아파서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며 혼자 일어나거나 식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2년 5월 29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321명

자체파송 74%

살롱! 우크라이나 소식 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물질로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된지가 백일이 넘어서 장기화가 되었고, 아직 전쟁은 종식이 되지는 않았지만, 긴 피난의 여정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남겨 두셨던 계획과 뜻이 있으시고, 저희도 복구를 위한 사역으로 전환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난 2주 전에 큰 밴이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폴란드를 경유하여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지금의 사역과 앞으로 단기 사역팀들을 위해서 17인승 버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떠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역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계획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통하여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246 킬로 떨어진 '일라와'라는 도시에 선교사로 파송한 우크라이나 사역자 슬라바 목사를 통하여 첫 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폴란드에 말신 목사님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가 시무하시는 교회에서 하루 저녁을 머물면서 앞으로의 동유럽 선교에 대한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선교를 위해서 폴란드 티디도 올 10월에 하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는 벌써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장소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번 독일 방문을 통해서 독일에서 목회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뒤셀도르프, 도르트문트, 록셈부르크 등등 유럽의 목사님들과 앞으로의 선교사역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사역들로 한창 부풀어 있는 중에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멘토가 되시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고 김광신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헌신의 삶을 몸소 보이셨던 고 김광신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슬픔도 아픔도 없는 천국으로 먼저 가셨지만, 이 땅에서 다시는 목사님을 뵈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메어져만 갑니다. 고 김광신 목사님 저희도 목사님이 가신 그길을 묵묵히 따라 가렵니다. 천국에서 다시 뵈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강권적으로 걸음, 걸음에 도움의 귀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남의 축복으로 전혀 알지도 못했던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계획을 주시고, 함께 동역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독일에서도 차를 구하는 일과 서류 문제를 또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순간, 순간들을 순조롭게 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면서 의약품들과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 주시고 좋은 곳에서 편히 쉴 수 있었고, 큰 밴 차에 의약품과 각종 물품들을 가득 채워 실고서, 혼자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올 때까지 맘이 안 놓여서, 일부터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함께 동승해 주고, 또 온 길을 비행기로 돌아가신 목사님들 덕분에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삼, 사일을 달려왔더니 몸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지난 두 주 간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할 일 뿐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아직 피곤이 풀리지 않은 상태이지만, 두 주간 하지 못한 구제 사역을 위해서 두 곳의 마을 분들에게 나눌 빵과 식료품들을 오늘 나가서 빵공장과 마케를 둘러서 차에다 가득하게 구입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우리들을 기다릴 그리운 그분들에게 복음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만날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젠 그만 중전을 기다리는데, 또 끼이브를 폭격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맘을 아프게 합니다. 이제 그만 무고한 피가 흘리지 않기를 두 손모아 간절하게 기도 드리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지만, 저는 어리석어 아직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께 얽드려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고 김광신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봐서인지... 오늘은 유난히도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다려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우크라이나 김교역, 김주순 선교사

광 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714-446-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날마다 생명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보배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공동체는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하기를 소원하며 아침과 저녁으로 “맥체인성경읽기” 순서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읽고, 듣고, 깨달아 행하는 사랑의공동체와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님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 칼리만탄 벤엘성경신학교 선교학 강의)

칼리만탄에서 함께 협력하는 벤엘성경신학교에서 2022년 1학기 선교학 수업을 7명의 학생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강성 무슬림 출신으로 공격적인 목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학생, 약물중독에 빠져 있다가 신학교에 입학하여 청소년 사역을 소망하고 있는 학생, 부부사역자로 중년의 나이에 헌신하여 복음전도자와 가정사역을 비전으로 품고 있는 신학생 부부등,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을 감당하고자 소망하는 신학생들입니다. 칼리만 탄과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하여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인도네시아 사랑의공동체 선교센터/보육원 건축현황)

2018년 6월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 “사랑의공동체”를 설립하고, 2021년 7월 사랑의 공동체 선교센터 기공예배를 시작으로 11개월차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마치고, 3층 예배당과 기도탑 철골골조와 지붕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보다 자재 값이 1.5배까지 오르는 등 여러 난관들이 있지만,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완공, 헌당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을 허락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때에 맞게 건축이 진행되고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조급한 마음이나, 인간적인 방법과 욕심을 내려놓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사랑의공동체의 핵심 사명인 “사랑! 생명!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이루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사랑의공동체 보육원 - 주님의 어린 양)

2021년 11월에 사랑의공동체 보육원에 보내주신 주님의 어린양(마리아 제니김, 2021.10.19 출생) 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몸과 지혜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부 다쳐(4명까지)가 합법인 인도네시아 사회 (이슬람)법과 칼리만탄 내륙의 조혼(10대) 및 미혼모 출산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영 • 유아 아동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어린양들을 계속해서 사랑의공동체에 보내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날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매일 아침(05-07시)과 저녁(08-09시), 금요철야(10-02시) 시간을 깨어서 지키게 하소서.
 - 매일 ‘맥체인성경읽기’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2. 2022년 2학기 칼리만탄 벤엘신학교와 GKE교단 신학교 강의와 협력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신학생들이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선교학 수업/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는 칼리 만탄 벤엘신학교와 GKE교단 신학교가 되게 하소서!
3. 인도네시아 사랑의공동체 선교센터 건축과 맡겨주신 사역들을 위해서.
 - 사랑의공동체 3층 예배당 철골 골조와 지붕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 사랑의공동체 유치원 개원 준비와 보육원, 예배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되게 하소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서 사랑의공동체_김태환 • 주애니 선교사 올림

성령 충만이란 내가 왕이라는 죄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돌아가 창조주 하나님께 오로지 순종하여 성령에 잡힌 바 된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분이므로 나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인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음에 따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하심으로 살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필연적인 관계성이다. 여기에는 사탄의 계략이 꺾어지고, 세상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흐른다. 이에 따라 거룩함이 함께하게 되어 내가 세상에 있지만 이 땅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게 되는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이루게 하는 이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성령님이시다.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란 말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의 복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 한다. 고로 나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하며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있을 뿐이므로 성령 충만이 늘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님은 고별설교를 하신 후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나)들을 위해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셨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나가야 하는데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언제나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하므로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달라는 간구이었다(요17:17,24). 여기서 진리는 곧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매개체이며(요 8:32), 거룩하게 하는 실행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16:13)이시다. 바로 요한복음 14장16-24절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 나를 세상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하 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었다.

성령 충만은 믿는 자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 것을 말한다. 하루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실천하고 마감되는 삶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하는 삶이다. 이는 내 자신의 뜻대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곧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통째로 구원하신 주님을 닮아가며, 기도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벧전 1:15)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세속화와는 구별되어 성령의 지배로 내 영광인 내 명예 재력 야망 권위 자존심 따위는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계승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는 것이 또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내가 받은 구원을 매일 이루어 나가는 것과도 같다.

구원 받았다고 그 구원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이다. 매일같이 내 자신이 더 많이 죽고, 반면 성령님의 더 많은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그 순도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에 더 높아져 성령님의 영향 안에서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국적으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숙된 성령 충만인 것이다. 구원의 완성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이뤄진다.

먹고 마시고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래야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죄와 세상과도 구별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령 충만은 매우 중요하다. 주님을 다시 오시어서 나를 부르실 때 “예, 여기 있나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도 성령 충만에서 나온다. 성령 충만치 않고서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지속되어야 한다. 참 신앙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령 충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믿음 위에 서게 한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르실 때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Warrior가 되기를 소망한다.

- 김대규 장로

